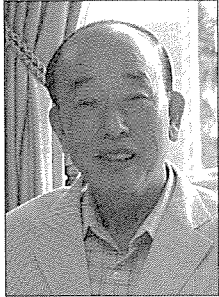




릴레이칼럼

단미사료 30년사 ⑥



김강식
전 농촌진흥청 차장
전 농림부 축산국장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고문

19

78년 한국단미사료가공조합 당시는 어집을 강피류에 흡착한 배합사료원료 생산을 위한 정부관리 밀기울의 배정과 멸치, 고등어의 어획 형성기가 어가 하락방지와 동시에 국산 어분생산을 위한 잉여 생멸치, 고등어 수매 정책 자금을 배정받아 어분 제조업체에 배정하는 조직으로 기억한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7년 제2차, 1972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성공으로 국민 1인당 소득이 1962년 당시 \$82이 1972년 \$320, 1977년 \$1,034로 연간 64%씩 증가함으로써 국민 식생활 내용의 질과 양의 급변화는 1970년 국민 1인당 육류소비량 4.2kg가 1980년에는 11.2kg로 연간 16%정도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70년 배합사료 507천톤이 1975년에도 900천톤, 1979년에는 3,880천톤으로 1970년 대비 1975년까지는 475%, 1975년 대비 1979년 420% 증가함으로써 배합사료 원료중의 박류 어분 사료원료는 1976년까지 국내산 원료로 충당되었으나 1977년 부터는 수입 충당하지 않고서는 배합사료 생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배합사료 생산사업이 농림부의 5대 중요 고질정책과제(농업자금, 양곡, 비료농약, 농기계, 사료)로 당국은 물론 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관심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러던중 본인이 1976년 5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육류수급 및 가격안정과제를 부여받고 당시 농촌진흥청 연구조정관에서 농림부 축산국장의 중책을 받고 부임하여 제일 먼저 육류증산과 가격안정이었기 때문에 우선 각축 단위당 생산량의 증가와 사육두수를 늘려 생산량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시책을 전개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시책자금 투자가 필요한데 당시(1976) 농림부 총 투자예산이 1,040여억원 중 축산국 예산은 가축방역사업과 초지조성 사업비 등 18억 여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예산이 식량증산에 소요되는 예산이었다.

한국단미사료산업을 떠올리며

당시 18억원의 예산으로는 육류수급안정을 위한 증산시책을 세울 수 없어 당시 최각규 장관에게 자체적으로 축산자금조성을 위한 축산판매 부과금 증수와 쇠고기 수입이 부득이한 실정하에서 수급상 부족한 쇠고기 수입을 건의해 수입쇠고기의 판매차액은 축산진흥기금으로 조성,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자금으로 지원하지는 정책건의를 받아들여 1976~1977년 축산법을 개정해 자금조성기반을 마련, 1978년까지 축산물 판매부과금 70억원 축산물 판매잉여금 529억원이 조성되어 축산기반조성 자금지원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같이 축산진흥기반조성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던 1977년 3월 감사원 직원 40여명을 투입해 2개월간 배합사료 생산유통에 대한 특별감사를 받게 되었다. 감사 결과 중 당시 배합사료 원료로 수입한 옥수수등의 유출유용은 적발하지 못했으나 중요 부정사업으로 배합사료 원료에 비료인 요소와 피역분만을 사료원료로 사용하게한 처리를 부정한 큰 사건으로 적발하여 감사원장인 신두영 원장에게 보고를 하니 크게 노하면서 그 자리에서 농림부 장관에게 “이럴 수 있느냐 담당자를 엄중 문책하라”는 전화를 받고 본인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으셨다. 피혁분말은 피혁내의 크롬성분을 제거한 것만을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하고 또 요소는 돼지, 닭 배합사료에는 사용할 수 없고 소 사료에 한해서 단백질 요구량의 1/3범위내에서 단 배합사료중 곡물사료원료가 60%이상 배합된 사료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론을 말씀드렸더니 즉석에서 신 감사원장에게 전화로 “일정 처리된 피역분과 일정량의 요소는 가축배합사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있다는 관계국장의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장관의 의견을 이야기 하면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겠다고 했다. 당장 3시까지 보내라는 명을 받고 감사원장실로 출두, 감사원 담당국장, 과장, 농대 화학과 출신 감사관등 4~5명이 배석한 가운데서 일정부 수원고등농림학교 출신인 원장에게 2시간정도 신문을 받아 정중하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려 이해하신후 금후 사료품질관리 강화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나의 의견에 동의하여 주셔서 나와 더불어 관계직원 한명도 문책을 받지 않도록 되었고 감사결과로 모든 배합사료의 주원료 이외의 부재료의 생산품질관리 조직으로 단미사료조합을 사단법인 단미사료협회로 1978년 11월에 승인한 것으로 기억된다.

그 이후 조성된 축산진흥기금 지원으로 국산 어분 및 기타 단미사료원료 생산이 활발하게 발전하여 우리나라 배합사료 생산과 가축사육에 없어서는 안될 협회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본다. 특히 그동안 협회와 각 회원사가 오늘까지 발전한 데에는 1978년 협회 발족부터 오늘까지 물심양면으로 회원사와 협회발전에 노력하신 현 유동준 회장의 노력의 소산으로 생각하며 금후 더욱 발전하여 우리나라 축산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㉟